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CPMI 첫 비서구권 의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의장으로 선임됐다. 신 총재의 CPMI 의장 선임은 비 미국·유럽 중앙은행 총재로서 최초다. 한국은행은 신 총재가 국제결제은행 세계경제회의(BIS GEM)에서 회원국 협의를 거쳐 CPMI 의장으로 선임됐다고 10일 밝혔다. 신 총재는 지난 1일부터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CPMI는 지급결제제도,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제기준 제정 및 협의기구다. 28개 주요국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지급·청산·결제 및 여타 지급결제제도 관련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전 세계 지급결제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중앙은행 간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정책·운영 협력 포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농어촌에 독서 희망"… SK이노베이션, 도서관 32곳 조성

3년간 도서 3만3000여 권 기부
아동 2000여 명 독서 환경 개선
독서 빈도 87%·흥미 160% 증가

SK이노베이션이 농어촌 아동들의 독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조성과 도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고아지역아동센터에서 '2026년 농어촌 아이들을 위한 행복Dream 도서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장홍락 리안공간 과장(왼쪽부터), 장성준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장, 나대활 구미 YMCA 사무총장,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ESG사업부문장, 엄상홍 SK이노베이션 CSR팀장, 정재승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 양진영 교보문고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장, 권경자 고아지역아동센터장이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고아읍 고아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 '행복Dream 도서관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올해는 경북 구미와 전북 진안, 경남 밀양 등 농어촌 지역 7곳에 도서관을 조성했다. 2024년 15곳, 지난해 10곳에 이어 누적 32곳으로 늘었다. 지난 3년간 기부한 도서는 3만3000여 권이며, 지원받은 아동은 2000여 명이다.

행복Dream 도서관은 농어촌 지역의 학습 불평등을 해소하고 독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마련하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기본급의 1%를 모아 조성한 '1% 행복나눔기금'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교보문고,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확대했다.

기부 도서는 구성원과 시민, 교보문고가 함께 마련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2026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로 도서 1만2000여 권을 모았다. 방송인 홍현희와 이낙준 작가도 홍보 영상에 참여해 시민들의 도서 기부를 독려했다.

도서관 조성 이후 아동들의 독서 활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이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독서 빈도는 사업 전보다 87%, 독서에 대한 흥미는 160% 증가했다. 도서관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5점으로, 아동들은 최신 도서와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책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독서 습관을 길러 더 큰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우리은행, 조손가정 아동 진로 지원

우리은행이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지원했다. 우리은행은 조손가정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오손도손 잡(JOB)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 해외 우수직원 국내 초청 연수

NH농협은행은 이달 13일까지 해외점포 우수 현지채용 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등 8개국에서 11개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는 현지채용직원과 글로벌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NH농협은행



금투협, 해병대 장병 금융교육·위문금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10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교육을 하고, 금융투자업계가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군장병 금융교육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군 복무 중 금융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장병들이 올바른 금융투자 가치관과 자산 형성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금융투자협회

부음 ▲정경남(향년 86세)씨 별세, 유상훈·유대희·유숙·유미씨 모친상, 최치봉(더팩트 전남광주제주취재본부장)씨 장모상 = 9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문화관 105호, 발인 11일 오전 11시 30분. 062-527-1000

▲김경한(전 대전MBC 상무·향년 94세)씨 별세, 김욱동(서울 강남 에이플러스치과 원장)·김혁동(서울 송파 김혁동한의원 원장)·김명동(전 삼성물산 부장)씨 부친상 = 9일 0시 30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1일 오전 6시 50분, 장지 의왕하늘쉼터. 02-2258-5957

삼표그룹, 암 생존자 일상 회복 지원

연세대 주최 제2회 온코런 후원

삼표그룹이 암 생존자의 일상 회복과 암 예방을 돕기위해 '온코런'을 후원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와 안산자락길 일대에서 열린 '제2회 온코런(ONCORUN)'을 공식 후원하고 임직원이 함께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연세암병원이 공동 주최한 '온코런'은 암 생존자와 가족, 의료진, 지역주민이 함께 달리고 걷는 참여형 행사다. 종양학(Oncology)과 러닝(Run)의 합성어로 운동이 암 예방과 재활, 생존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위해 마련됐다. 삼표그룹은 운동으로 암 생존자의 일상 회복과 암 예방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해 온코런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연세대에 후원금 7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암 생존자, 지역주민 등 1100여 명이 함께 암 예방과 운동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듣고 5km 달리기와 3.2km 걷기 코스를 선택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콜마, CES 2027 혁신상 3관왕

뷰티테크 최고혁신상 2년 연속 수상
AI 맞춤형 화장품 제조 기술력 입증

한국콜마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7'에서 뷰티테크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2년 연속 석권해 인공지능(AI) 기반 화장품 제조 기술력과 글로벌 K뷰티 역량을 입증했다.

한국콜마는 오는 2027년 1월 6~9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7'을 앞두고 발표된 수상 결과에서 '크로마 플로우'가 뷰티테크 부문 최고혁신상과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루미젯 프로' 역시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출품작 2개 모두 상을 받아 총 3관왕에 올랐다.

우선 크로마 플로우는 맞춤형 립 제품을 위한 기술이다. 화면 속 인플루언서의 립 색상을 내 입술에 그대로 구현한다. AI 광학센서가 개인마다 다른 입술 색과 톤을 분석해 최적의 배합 비율을 계산하고, 7개 컬러 카트리지를 활용해 원하는 색상의 립 제품을 1분 안에 만든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소진공, 여가친화경영 기관 재인증 획득

2024년 첫 인증 이어 재인증 성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여가친화경영 기관' 재인증을 획득했다. 10일 소진공에 따르면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소진공은 2024년도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이번 재인증에도 성공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과 유연근무 활성화, 장시간 근로 개선 노력,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지원제도 운영 등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연차휴가와 유연근무 사용 여건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2025년 연차휴가 사용률 91.5%를 달성했다. 또한 노사 협의를 통해 '22년 이후 매년 초과근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단순 반복 업무를 AI·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장시간 근로 개선에도 힘썼다. /김승호 기자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화M&S 본사에서 열린 '2027 월간 한 모금 사회공헌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

한화그룹, '월간 한 모금' 나눔 확대

한화 계열사 7곳 사회공헌 동참
밀알복지재단과 지원 협약 체결

한화그룹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의 사회공헌사업 '월간 한 모금'이 지원을 크게 늘린다. 신설 지주사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M&S)를 중심으로 참여사와 지원 규모를 함께 키워 치료가 시급한 장애 아동 가정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한화M&S, 한화비전, 한화세미텍, 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아워홈, 한화푸드테크 등 7개사는 지난 9일 한화M&S 본사에서 밀알복지재단과 '2027 월간 한 모금'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금 2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금은 임직원 성금에 회사 기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마련됐다. 올해 지주사 출범을 계기로 한화M&S·한화세미텍·한화푸드테크 3곳이 새로 참여했고 내년 지원금도 올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사업명은 한화의 '한'과 '모금'을 합친 것으로 갈증을 풀어주는 물 한 모금처럼 의료 지원이 급한 가정에 힘이 되겠다는 뜻을 담았다.

'월간 한 모금'은 2024년부터 지금까지 장애 아동 56가정에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긴급한 아동부터 먼저 돕는다. 뇌병변 장애를 앓는 박지온 군의 어머니 권성화 씨는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적기에 지원받아 지온이가 끊기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한국앤컴퍼니, 장애인배드민턴 리그 성료

영암 최종전 끝으로 올해 일정 마감

한국앤컴퍼니그룹이 후원하는 장애인배드민턴 리그가 영암 최종전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쳤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2026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배드민턴 리그'가 지난 8일 전남 영암실내체육관에서 폐막했다고 밝혔다.

올해 리그는 5월 충남 태안, 7월 충남 금산, 11월 전남 영암에서 세 차례 열렸다. 지난 5~8일 진행된 최종전에는 전국 선수와 동호인 200여 명이 참가했다. 누적 성적을 합산한 결과 선수부 단식 종합 순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회동호인부에서는 경기도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그룹은 2024년 첫 대회부터 3년 연속 후원을 이어왔다. 대회는 지난해부터 전문 선수와 동호인이 함께 참가하는 전국 단위 리그로 확대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장애인배드민턴 리그전이 전국 단위로 확대되며 선수와 동호인들이 꾸준히 기량을 펼치고 교류하는 무대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식 개선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